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27.(금) 조간 < 2026. 11. 26.(목) 15:00 >

중기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 개정「의료법」시행('26.12.24)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업계 현장의견 청취 및 대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26일(목) 비대면진료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의료법 하위규정(시행규칙·고시)에 대하여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운영 중인 벤처·스타트업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던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법적 제도화 시행(12.24)을 앞두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비대면진료 실시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관련하여 업계 현장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비대면진료 서비스 스타트업,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및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6. 11. 26. (목) 15:00 ~ 16:30 / 서울창경센터 5층 C홀
- **[참석대상]** 중기부 장관, 비대면진료 서비스 스타트업(닥터나우, 메라키플레이스, 솔닥, 굿닥 4개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전문가 10명 내외
- **[주요내용]**「의료법」하위규정(시행규칙·고시) 관련 현장의견 청취 및 대안 논의

간담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세부기준과 관련하여 ▲초진시 비대면진료 처방일수 제한, ▲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실거주지 확인 방법, ▲비대면진료 실시 방법, ▲처방 제한 의약품 범위, ▲비대면진료 서비스 운영기준 변경 신고 등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비대면진료 서비스 스타트업은 “오랜 시범사업 끝에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됐지만, 시행규칙과 고시의 구체적인 조항들로 인해 국민의 편의성이나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산업의 제도화가 경영 부담의 증가와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진다면 신산업에 과감하게 도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술혁신의 성과가 국민의 일상에 폭넓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등장에 발맞춘 제도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비롯한 다양한 혁신 산업 분야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벤처·스타트업의 도전과 창의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담당 부서	창업정책관 창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상규	(044-204-7620)
		담당자	서기관	박 현	(044-204-7625)
			사무관	송승현	(044-204-7647)
			주무관	이해인	(044-204-7661)